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증진센터에서 5월 7일부터 3일간 사진촬영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관 4층 건강증진센터에 마련된 포토부스에는 건강검진 고객과 우리 병원 직원을 포함한 500여 명이 방문해 즉석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5월 9일 직원들이 포토부스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나호 정답



제747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비타민D 데이 화보 - 우리, 함께, 비타민D 데이!'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고객만족팀 강은지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5년 6월 1일(일)
발표 제751호(2025년 6월 15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최동혁(외과간호2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안은정(성형외과)
조혜경(외과간호1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심순미(간호교육행정팀)
최현순(수술간호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박경아(수술간호팀)
신연희(외과간호2팀)
양은선(수술간호팀)
이소정(어린이병원간호팀)
한선형(외래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이규리(내과간호2팀)
최예랑(수술간호팀)



서울아산병원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VOL.749 2025. 5. 15



세계 첫 9,000례... 간이식 역사 새로 쓰다

4월 30일, 우리 병원 간이식팀이 8,999번째와 9,000번째 간이식 수술을 동시에 성공하며 단일 의료기관으로 세계 첫 간이식 9,000례를 달성했다. 1992년 8월 처음 뇌사자 간이식을 시행한 이후 32년 8개월 만이다. 간이식·간담도외과를 비롯한 여러 진료과와 수술실, 중환자실, 병동, 장기이식센터 등 수많은 간이식팀 의료진이 '원 팀'이 되어 말기 간질환 환자를 살리려는 집념이 이뤄낸 성과다. 이날 오전 10시, 병원보 편집실에서 수술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8,999번째 수술에서 간이식·간담도외과 정동환 교수, 나병곤 부교수가 기증자 간 절제(1번 사진), 안철수 교수, 강우형 부교수가 수혜자 간이식(2번 사진)을 진행했다 9,000번째 수술에서 김기훈 교수, 김상훈 조교수가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 간 절제(3번 사진), 이승규 석좌교수, 박길춘 교수, 윤영인 부교수, 김성민 조교수가 수혜자 간이식(4번 사진)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2면)

03 NEWS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간암 예방 효과

06 NEWS 국민연금공단과 진료정보 전자 교류 협약

08 AMC 리얼스토리 우리들의 작전 타임

12 가정의 달 특집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절체절명 간질환 환자 9,000명에게 새 삶 선물

“의료진 ‘원 팀’으로 환자 살리고자 노력한 결과”



간이식팀 의료진이 간이식 수술 9,000례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30일 오전 8시, 간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병동을 나섰다. 알코올성 간경화로 생명이 위태로운 40대 윤 모 씨와 간암과 간경화를 앓고 있는 70대 모 모 씨,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 간을 기증하는 조카들. 네 사람이 각자의 수술실에 들어오자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기증자들의 수술실에서 간을 안전하게 절제하는 동안 수혜자들의 수술실에서는 간이식을 위한 준비가 이뤄졌다. 11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건강한 간이 수혜자에게 이식됐다. 혈류를 개통하는 순간, 회색빛 간에 붉은 생기가 돌았다. 우리 병원 간이식팀이 8,999번째와 9,000번째 간이식을 동시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병원 간이식팀이 4월 30일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여, 43세)에게 조카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단일 의료기관으로 세계 첫 간이식 9,000례를 달성했다.

우리 병원은 1992년 첫 뇌사자 간이식 이후 이날까지 생체 간이식 7,502례, 뇌사자 간이식 1,498례를 실시했다. 우리 병원에서 실시한 간이식의 85%를 차지하는 생체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보다 수술이 까다롭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크다. 8,999번째와 9,000번째 역시 생체 간이식이었다. 특히 9,000번째 수술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혈액형이 달라 거부반응 발생 위험이 컸다. 의료진은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식 전 환자에게 항체 형성 억제제를 투여하고 혈장교환술을 시행하며 환자 안전과 수술 성공에 만전을 기했다.

우리 병원의 간이식 생존율은 98%(1년), 90%(3년), 89%(10년)로 매우 높다. 간이식 역사가 깊은 미국 피츠버그 메디컬센터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메디컬센터의 평균 간이식 생존율 92%(1년)와 비교해도 우수한 수치다. 세계 최고 수준 생존율의 배경에는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술법, 이식 후 집중관리 시스템이 자리해 있다. 간이식-간담도외과를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외과, 소아청소년전문과 의료진이 속한 간이식팀은 개별 의료진마다 간이식과 관련 치료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이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장기이식센터, 수술실과 회복실, 중환자실, 병동 등에서는 이식 전후 맞춤 관리를 시행하며 이식받은 장기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 병원은 더 많은 간질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수술법을 세계 이식 학계에 제시해 왔다.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가 1998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형우엽 간이식은 현재 전 세계에서 표준 수술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2000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2대1 생체 간이식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범위를 넓혔다. 간 기증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우리 병원은 2008년 국내 최초로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 간 절제에 성공한 이후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 주도로 복강경과 최소절개술을 이용한 기증자 간 절제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승규 석좌교수는 “말기 간질환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환자 9,000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환자를 살리겠다는 도전과 열정으로 ‘원 팀’이 된 간이식팀 의료진, 그리고 수술 후 눈부신 생명력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환자들 덕분이다. 앞으로도 많은 간질환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몽준 이사장, 고려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5월 5일 열린 고려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학위수여식에서 송명호 고려대 교무회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송진원 고려대 대학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5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몽준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영학 석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는 정 이사장이 아산재단을 통해 소외된 이웃의 자활과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했고, 2011년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해 청년창업과 사회혁신을 지원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1988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외교, 안보, 통일, 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고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월드컵조직위원장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수여식에서 “정치와 외교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해 온 정몽준 이사장님의 삶과 발자취에는 지성과 공공의 가치를 지닌 리더십이 담겨 있다”며 “우리 사회와 세계를 향한 긍정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답사에서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을 맞은 올해,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간암 예방 효과



최종기 부교수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간염, 지방간 등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화기내과 최종기 부교수는 만성 간질환 환자 1만 6,501명을 대상으로 스타틴 복용에 따른 간세포암과 간부전 발생률, 간 섬유화 진행 여부를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속한 병원 네트워크인 ‘매스 제너럴 브리검’ 환자 데이터가 활용됐으며 간암이나 간부전 병력이 없는 40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됐다.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는 3,610명,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1만 2,891명이었다.

분석 결과 10년 내 간암 발생률은 스타틴 복용군에서 3.8%로 비복용군의 8.0% 대비 4.2% 낮았다. 간부전 발생률도 스

타틴 복용군은 10.6%로 19.5%인 비복용군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타틴을 오래 복용할수록 효과적이었다. 누적 600일 이상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는 간암과 간부전 위험이 비복용군에 비해 각각 4.5%, 10.4%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간 섬유화도 스타틴 복용군에서는 초기 중등도 간 섬유화 환자의 14.7%만이 10년 내 고위험군으로 진행된 반면 비복용군에서는 20%가 진행됐다. 또한 초기 고위험군이 중등도로 개선된 비율은 스타틴 복용군이 31.8%로 비복용군의 18.8% 대비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최 부교수는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는 스타틴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통념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장기 예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내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 『미국의사협회지 내과학저널』에 최근 게재됐다.

동 정

채희동 교수 울산대 의무부총장 연임



산부인과 채희동 교수가 5월 1일 울산대학교 제19대 의무부총장으로 연임됐다. 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2년이다. 채 교수는 2000년 울산의대 산부인과학교실 부임 이후 ▲교무의학과장 ▲학생부학장 ▲교무부학장 ▲제16, 17대학장을 역임했으며 2023년 5월 신임 의무부총장으로 취임해 올해 4월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홍준표 교수 세계미세수술학회장



성형외과 홍준표 교수가 최근 세계미세수술학회장에 취임했다. 세계미세수술학회는 각국의 미세수술 학회가 모여 만든 학술 단체로 전 세계 미세수술 분야 연구 및 발전을 이끌고 있다. 홍 교수는 초미세수술, 당뇨발 재건, 림프부종 수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홍 교수의 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2년이다.

송상훈 교수 국책과제 수주



비뇨의학과 송상훈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송 교수는 '멜라토닌과 발프로닌산 혼합 프라이밍 기반 다기능성 중간배엽줄기세포를 활용한 폐색성 신장병증 치료제 개발' 분야의 전임상연구부터 임상적용, 인허가 절차에 이르는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이번 과제는 2025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9개월 간 진행된다.

사호석 교수 우수증례상



안과 사호석 교수가 4월 12일 해운대백병원에서 열린 대한성형안과학회 춘계 증례토의에서 우수증례상을 받았다. 사 교수는 '안구 뒤 공간을 광범위하게 채우고 있는 종양의 치료'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김상훈 조교수 우수구연상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상훈 조교수가 4월 24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내시경로봇학회 춘계학술대회(KSERS 2025)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 조교수는 '순수 복강경 공여자 우간절제술의 유용성: 단일 기관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김진석 레지던트 구연발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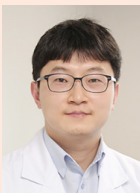
치과 김진석 레지던트가 4월 18일부터 3일간 열린 제66차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AI 복원 알고리즘을 이용한 구강악안면영역의 3차원 CT와 측모 두부방사선의 재구성 능력에 관한 정량적 평가'를 주제로 구연발표우수상을 받았다.

전은성 부교수, 김인기 교수 국책과제 수주



융합의학과 전은성 부교수, 김인기 교수팀이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다중 어셈블로이드 바이오프린팅을 통한 체장암 내성 극복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전은성 부교수는 '종양 복잡성 해결을 위한 자가조립형 기능성 펩타이드-항암제 전구체 나노약물 기술 개발' 주제에도 선정돼 2025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김원웅 부교수, 김병창 임상전임강사 학회서 수상



내분비외과 김원웅 부교수, 김병창 임상전임강사가 4월 2일부터 3일간 열린 제19회 아시아내분비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김원웅 부교수는 '갑상선 수질암에서 종양 크기에 따른 칼시토닌의 측정부 림프절 절제술 예측인자로서의 임상적 역할의 유용성'을 주제로 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후지모토 최우수연구상을, 김병창 임상전임강사는 '갈색세포종에서 로봇과 복강경 부신절제술의 비교연구: 국제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최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권혜미 조교수, 김연주 임상전임강사 학회서 수상



마취통증의학과 권혜미 조교수, 김연주 임상전임강사가 4월 26일 열린 대한이식마취학회 제12차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권혜미 조교수는 '생체 간이식 수혜자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이 수술 후 급성 신손상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 대조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상을, 김연주 임상전임강사는 '간이식 환자에서 관상동맥 석회화의 장기적 예측과 이식 후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최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류정률 임상강사 알라비-만델상



핵의학과 류정률 임상강사가 최근 미국 핵의학 및 분자영상학회로부터 알라비-만델(Alavi-Mandell)상을 받았다. 이 상은 매해 전년도 '미국 핵의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 중 혁신적이고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제1저자에게 수여된다. 류 임상강사는 지난해 학회지에 게재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 결정에 있어 18F-FES PET/CT의 임상적 영향'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이 상을 받았다.

인 사

보직임명

중환자-외상외과 축탁임상부교수 장예림 임 : 중환자-외상외과 의국장
- 2025. 5. 1부.

어린이날 기념행사



5월 2일 임호준 어린이병원장이 환아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환아를 격려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4월 30일

과 5월 2일 잇따라 열렸다. 4월 30일 어린이병원 외래에 내원한 환아와 병동에 입원 중인 환아들은 장난감 세트를 선물로 받았고, 아루미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직원 18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5월 2일에는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햇살나무'와 HD현대1%나눔재단, 메이커어위시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환아를 위한 마술쇼, 선물 전달식, 소원성취 프로그램 접수가 진행됐다. 소원성취 프로그램은 5월부터 두 달간 우리 병원 환아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소원들 중 35가지를 선정해 이루어주는 활동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BTS진	100,000,000원
박민하	1,000,000원
안영락(전 금강아산병원장)	10,000,000원
엘케이그룹	100,000,000원
연세웰키즈치과	10,000,000원
유인동	10,000,000원
이아인	5,000,000원
임채민	1,000,000원
주식회사 KB금융지주	50,000,000원
주식회사 알와이오오	10,000,000원
(주)에스엠아이이엔지	40,000,000원

(주)외유내강	10,000,000원
차태현	2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김은강	10,000,000원
박복순	200,000원
박찬성	226,000원
이진영	100,000,000원
주식회사 KB금융지주	50,000,000원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300,000,000원
(주)에스엠아이이엔지	10,000,000원

연구

홍채희	500,000원
-----	----------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박유미	100,000원
손지윤	1,000,000원
정수민	3,000,000원

- 2025년 4월 30일 기준, 가나다 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국민연금공단과 진료정보 전자 교류 협약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승일 병원장(왼쪽 세 번째,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5월 8일 국민연금공단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해 장애정도심사 보완 자료를 전자적으로 요청하고 수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정도심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위해 심사 대상자에게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공문을 보내 우편으로 보완 자료를 수신해 왔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 우리 병원은 연간 3,600건 이상의 장애정도심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장애인 환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도암 국소 치료 광역학 카테터 개발



박정훈 부교수



김도훈 교수

광역학 치료는 광응답제를 혈관에 주입한 후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해 표적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융합의학

과 박정훈 부교수,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팀이 최근 기존 광역학 치료를 보완해 식도암 국소 치료가 가능한 광역학 치료용 카테터를 개발하

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혈액을 통해 주입하던 광응답제(AI-PcS4)를 스텐트에 직접 코팅해 병변에만 국소적으로 적용하고, 스텐트 내부에 투명한 레이저 전용 통로를 만들어 균일하게 빛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 후 곧바로 스텐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 스텐트의 장기간 거치로 인한 천공, 출혈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였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스'에 최근 게재됐다.

20년 이어온 코성형 심포지엄



아산 코성형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0회 아산 코성형 심포지엄이 5월 10일부터 이틀간 동관 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포르투갈,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9개국에서 온 연자를 비롯해 코질환 전문 의뢰진 180여 명이 참석해 ▲휘어진 코의 성형 ▲코끝 성형술 ▲코 성형 재수술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는 “학회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다채로운 강의와 수술 영상을 준비했다. 이번 심포지엄이 코성형수술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동료 의료진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를 이끄는 챔피언들

당뇨, 상처·장루, 통증 간호 전문가인 ‘챔피언 간호사’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동료 간호사를 교육하고 조언하며 간호 전문성과 의료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당뇨, 상처·장루 분야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응급간호팀 최희화 대리**, **암병원간호1팀 서혜림 주임**을 만나 그간의 활동을 들어보았다. <편집실>



(왼쪽부터) 암병원간호1팀 서혜림 주임, 응급간호팀 최희화 대리

환자, 보호자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유튜브로 잘못된 당뇨병 지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 잘하는데 왜 교육 받아야 하나며 불편해하는 분에게도 틀린 점과 옳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서혜림** 그동안 욕창 사례를 분석하니 피부 전충이 손상될 정도로 악화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피부 사정과 예방 드레싱을 강화하고, 환자들이 조금씩 자주 몸을 들썩이도록 돕는 ‘작은 움직임’ 캠페인을 시행했다. 그러자 1년 후 욕창 건수와 중증도 모두 감소했다. 매트리스, 드레싱 물품 등 욕창 예방 물품을 적극 권유하니 보호자가 상품 관측원으로 오해한 적도 있었다(웃음).

챔피언 간호사를 지원한 계기는

최희화 27병동에 입원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감염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환자 치료도 지연된다.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심화된 당뇨병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 챔피언 간호사에 지원했고 3년간 활동을 진행했다.

서혜림 74병동에서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암 간호를 하며 욕창 고위험 환자를 많이 만났다. 항암치료 못지않게 욕창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유닛 매니저님이 챔피언 간호사 활동 신청을 권유했다. 적어도 욕창 상처로 인한 불편함만큼은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챔피언 간호사 첫 해를 보냈다.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

최희화 병동 간호사들과 ‘당당 챌린지’ 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뇨병을 제대로 알고 혈‘당’ 관리를 하자는 뜻이다. 혈당 관리, 인슐린 주사, GLP-1유사제, 경구용 혈당 강하제 등 교육 내용을 학습지로 만들고, 혼자 공부하기 편하게 문제풀이 해설과 개인별 피드백을 상세하게 담았다. 8주 학습을 마친 뒤 당뇨병 환자 간호에 자신감이 생겼으며 기뻐하는 동료들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서혜림 DNR 환자가 꼬리뼈 근처에 욕창이 있는 상태로 우리 병동으로 왔다. 90도로 앉아야만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어 자세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작은 움직임을 두려하고 꾸준히 예방 드레싱을 하니 48일 만에 상처가 다 나았고 욕창도 더 생기지 않았다. 내 노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앞으로의 목표는

서혜림 욕창 예방 활동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혈액순환 체조’ 영상을 만들어 입원 환자 교육자료로 활용해보려 한다. 욕창은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만 생긴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환자 스스로 상처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최희화 챔피언 간호사 활동을 하며 부서에 꼭 필요한 ‘리소스 퍼슨(resource person)’이 되라는 조언을 받았다. 더 나은 간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선배, 동료 챔피언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더욱 공부하고 성장해 우리 부서와 병원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우리들의 작전 타임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 또...”

호빈이 엄마는 전화 한 통에 풀썩 주저앉았다. 소아청소년전문과 이범희 교수의 전화였다. 추가 자료를 덧붙여 낸 3번째 신약 신청서 역시 반려됐다는 것이다. 선천성 희귀병으로 혈관이 증식하면서 다리가 통통 붓고 온몸에 내부 출혈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신약이 2세 미만 환아에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고통을 안고 사는 아이에게 신약을 주는 일이 왜 이리 어려울까. 부모와 의사, 제약사가 힘을 모아도 불가능하다면 앞으로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복직이는 상점가엔 모두가 즐거워 보였다. 서럽게 울던 엄마는 어디로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우리가 뭘 어떡할 수 있을까’

태아 때 호빈이의 정밀 초음파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병원이 없었다. 그래서 찾게 된 서울아산병원이었다. 산부인과 원혜성 교수는 태아의 왼쪽 목 아래가 부어있고 림프부종으로 보인다고 했다. 심장이나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다만 한 가지. “만약 혈관종을 동반한다면 조금 골치가 아프겠네요.” 얼핏 흘러들은 우려는 아이를 만날 때까지 엄마의 마음을 매일 헤집어 놓았다. ‘괜찮겠지? 괜찮을까?’ 출산일까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2022년 1월 몹시 시린 날, 호빈이를 만났다. 왼쪽 손과 다리가 많이 부어 있고 혈관종을 동반했다. 포도빛 주반이 곳곳에 보였다.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였다. 부모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도 힘 내보자는 남편의 다독임도 아내의 께가에 걸돌 뿐이었다. ‘뭘 어떡할 수 있는데?’ 호빈이는 핏줄 안에 흑이 생기는 희귀병으로 조금만 부딪혀도 혈관이 터지면서 온몸에 커다란 흑이 생겼다. 등에 흑이 생기면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다. 아파하는 아이를 안고 몇 날이고 밤을 지새웠다. 면역억제제는 증상을 잠시 잠재울 뿐. 그마저도 부작용이 하나 둘 나타났다. 복용을 중단하기까지 부모에겐 큰 용기가 필요했다. 치료법이 없는 암담한 현실에서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부모로서 미안하고 한편으론 서러웠다. 책임져야 할 존재가 나날이 커지면서 누군가의 가벼운 위

로조차 마음에 더할 공간이 없었다. 세상과의 울타리를 높이 세우기 시작했다. 세 가족의 행복을 위한 최선이라 여겼다.

간절함이 닿으면

비슷한 질환을 앓는 환우 카페에서 표적치료제가 나왔다는 정보를 접했다. 아이에게 해줄 뭔가가 있다는 자체로도 새로운 희망이었다. 서둘러 이범희 교수의 진료를 예약했다. 신약에 대해 물어볼 것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했다. 가족 외에 아이의 질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 교수는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골몰했다. “제가 못 챙긴 자료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의사는 뭐든 다 아는 사람, 그래서 대하기 어려운 존재로만 여겨졌던 부모에게 이 교수는 가장 많은 질문을 갖고 그 답을 찾으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다만 신약은 유전적 변이가 확인되고 2세 이상 되어야 신청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유전자 검사에서 호빈이는 신약 복용 범위에 들었다. 하지만 연령이 문제였다. ‘2살까진 가정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건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았다. 호빈이의 증상이 나날이 심각해지자 이 교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방법을 찾아 나섰다.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죠!”

우선 제약사의 동의가 필요했다. 호빈이 엄마는 매일 제약사에 전화하고 해외 본사에도 메일을 보냈다. 곧 신약 출시를 앞

둔 상황이라 임상 목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픈데 여기 맡곤 부탁드릴 데가 없어요”라며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고통스럽게 가만히 있느니, 뭐라도 하는 편이 나아!’ 부모이기에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다. 간절함이 닿았는지, 제약사에선 내부 회의를 거쳐 무료 지원을 약속했다. 호빈이 아빠는 전 세계 2세 미만의 투약 사례를 직접 찾아 나섰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주치의들에게 신약 복용 효과를 알려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신기하게도 메일을 보낸 병원마다 모두 회신을 보내왔다. 이 교수는 2세 미만의 안정성을 근거할 자료를 덧붙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냈다. 희귀병에 대한 경험이 적은 전문가들은 연거푸 반려 결정을 내렸다. 실망이 컸지만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다. 더 이상 부모만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었다.

새로운 작전

“혹시 이 방법은 어떨까요?” 이 교수는 새로운 돌파구를 제안했다. 뉴스 인터뷰였다. 아이의 투병 사실을 주위에 숨겨온 부부로서 큰 용기를 내야 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이 방법마저 소용없다면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이민 갈 각오까지 세운 터였다. 뉴스 말미에 식약처 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다시 신청하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심의를 거친 후 신약 투여는 최종 허가됐다. 호빈이는 2세 미만의 국내 첫 복용 사례였다.

신약을 복용한 이후 붓거나 흑이 생기는 일은 드물어졌다. 생긴다 해도 금방 가라앉았다.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다. 뱃속 혈관이 회복되면서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에서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유달리 큰 원발 때문에 샌들만 신어왔던 호빈이는 기성 신발을 골라 신었다. 걸음걸이도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그동안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했던 부모는 호빈이를 더 예뻐하고 기뻐해 주지 못한 시간이 아쉽기만 했다. 주변과 쌓아 온 답도 자연스레 허물어졌다. 호빈이가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고



사회에 당당히 서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부모로서 구체적인 고민도 시작됐다.

또 다른 세상이 알려준 것

호빈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년의 경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이제 한고비를 넘었을 뿐 많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전처럼 두렵지만은 않다고 호빈이 부모는 말한다. ‘환자’라는 이유로 움츠러들며 세상과 담을 쌓을 때, ‘호빈이’를 놓지 않으려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난 덕분이었다. 호빈이의 투약을 시작으로 2세 미만 혈관종 환자 15명이 신약 치료를 시작했다는 감격스러운 소식도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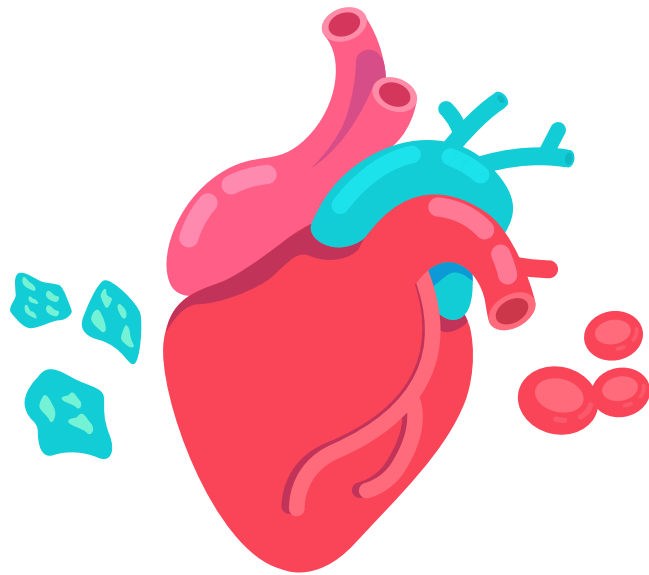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기꺼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꺼운 심장 비후성 심근병증



심장내과 이상언 교수



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유전성 질환이다. 전 세계 인구 약 500명 중 1명 꼴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며 최근 무증상 환자의 조기 발견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병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심근 수축에 관여하는 단백질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며 가족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전자 이상이나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는 비가족성 환자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등 다양한 발생 경로와 표현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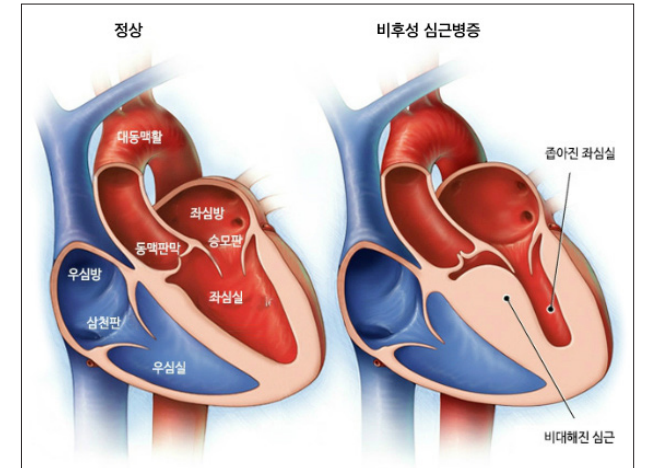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병의 경과는 어떤가요?

상당수 환자는 무증상 상태로 발견되지만 일부에서는 운동 중 실신이나 돌연심장사로 처음 진단되기도 한다. 수십 년간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다가 심장 수축 기능이 저하되는 말기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좌심실 유출로 폐쇄다. 수축기 동안 승모판 전엽이 비후된 중격 쪽으로 끌려가면서 혈류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가슴 답답함, 운동 중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폐쇄가 없는 경우에도 심근 이완기 장애나 부정맥,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심근이 단단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면 좌심실로 혈액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아 이완기 기능 장애가 발생하며 운동 시 호흡곤란이 심해진다. 또한 심방의 수축 기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심방세동이 발생할 경우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심근 허혈, 승모판 역류, 운동 중 혈압 반응 이상을 동반하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 등도 다양한 임상 양상을 설명하는 요소다. 결국 비후성 심근병증은 단순히 '심장이 두꺼워지는' 질환이 아니라 복합적 이상이 얹혀 다양한 임상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질환이다.

어떻게 진단하나요?

비후성 심근병증 진단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시작한다. 성인의 경우 고혈압이나 대동맥판 협착증 없이 심장 벽의 두께가 15mm 이상이면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가족력이 있거나 병적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라면 13~14mm라도 진단을 고려한다. 심장 벽 두께를 나타내는 표준값(Z-score)이 2 이상이면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본다. 심장초음파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심장 MRI검사로 보완할 수 있다. 이는 국소 비후, 심근섬유화, 심내 구조 이상 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필요에 따라 유전자 검사도 시행해 근육 수축과 관련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병적 변이 유무를 확인한다. 유전자 양성 환자에서는 심장초음파상의 비후가 나타나기 전부터 가족 단위로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비후성 심근병증의 치료는 폐쇄 여부, 증상, 돌연사 위험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 정기적인 추적 관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유증상이거나 유출로 폐쇄가 있다면 약물 치료가 우선 시행된다.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며 유출로 압력 차가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중격절제술이나 중격 알코올 색전술과 같은 침습적 중재가 고려된다. 부정맥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해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심근 수축 과다가 비후성 심근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표적 치료제인 마이오신(Myosin) 억제제가 개발됐다. 정상 심근에서는 마이오신과 액틴(Actin)이라는 단백질이 교차결합 돼 균형을 이루지만 비후성 심근병증에서는 이 교차결합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비후, 이완 장애, 폐쇄를 유발한다. 마이오신 억제제는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을 줄여 교차결합 수를 줄이고 심근 수축력을 정상 범위로 조절한다. 특히 기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수술 없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비침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박출률 저하 위험이 있어 정기적인 심초음파 모니터링과 약물 용량 조절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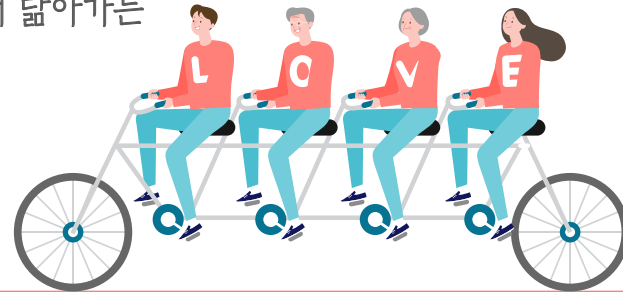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후성 심근병증은 맞춤형 치료와 관리 덕분에 장기 예후가 매우 좋아졌다. 현재 적절한 관리 하에 심장 관련 사망률은 연간 0.5% 미만이며 정상 기대수명에 근접한 삶을 살 수 있다.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이롭고 일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심장 기능, 폐쇄 여부, 부정맥 위험도 등을 고려한 운동 계획이 필요하며 탈수, 과도한 스트레스, 과음은 좌심실 유출로 폐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연, 절주, 규칙적 수면 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심장 건강 수칙도 매우 중요하다.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심전도, 필요시 MRI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가족력이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선별 검사도 권장된다.

아, 우리 가족이구나!

어느 날 문득 아이의 편지, 부모님의 모습에서 ‘가족의 의미’를 실감할 때가 있다. 하루하루 함께 쌓은 시간이 고스란히 묻어나서 때로 미소도, 눈물도 짓게 만드는 순간이다.

가정의 달 5월, 직원들이 전해온 ‘나를 꼭 닮은, 점점 더 닮아가는 나의 편, 나의 가족’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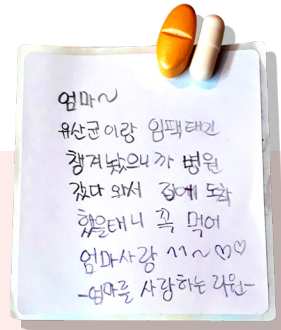


한 핏줄이면 마음도 하나!

저희 세 남매는 모두 간호사입니다. 저는 서울, 남동생과 올케는 부산, 여동생은 대구! 근무지는 다 다르지만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의 칠순을 기념해 우리 삼남매의 자녀 여섯 명도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아이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도 간호사를 장래희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자녀들인데 아무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 나름대로 핏줄이라 한마음인가 봅니다.^^; 암병원간호1팀 강경현 과장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도시락 퍼레이드 🍱

몸이 좋지 않아 건강 회복을 위해 식단을 잘 관리하는 중입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위해 모든 식재료와 식사 메뉴를 배려하며 응원해 주니 ‘역시 가족밖에 없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매일 새벽 반찬을 만들어 저를 위한 도시락을 싸주십니다. 점심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특수검사팀 배주희 대리



이브닝 근무인 날 남편도 출장 가고 처음으로 아이들만 집에 있던 밤. 서둘러 퇴근했더니 거실은 말끔히 정리돼 있고, 식탁 위엔 딸이 남긴 메모와 영양제까지!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딸이 어느덧 사춘기... 그래도 엄마가 많이많이 사랑해~ 암병원간호2팀 안희남 과장



남편은 내 전담 마사지사

6월 출산을 앞두고 부쩍 커진 배 때문에 이브닝 근무 후 압박 스타킹과 양말을 벗지 못하고 귀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오늘 하루 고생했고 수고했어” 다독여주며 압박 스타킹과 양말을 벗겨주고 종아리 마사지도 해줘요. 집에 선물 받은 종아리 마사지가 있지만 사랑과 정성이 담겨서인지 남편의 마사지가 훨씬 시원한 느낌입니다. 결혼 후에도 연인 같던 남편은 제가 임신 후기에 진입하면서 더욱 소중한 가족이자 든든한 존재가 되어가요. 새로운 가족인 조이도 남편과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습니다! 외과간호2팀 고명조 주임

꽃보다 예쁜 우리 엄마

엄마는 학창 시절에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대구에 여행을 갔을 때 함께 교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여고 시절로 돌아간 엄마의 풋풋함과 미소를 보고 알았습니다. ‘엄마도 꽃보다 예쁜 날이 있었구나!’ 그날 사진 기사는 모녀가 꼭 닮았다고, 자매 같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엄마는 젊은 날의 자신을 보듯 저를 보았고, 저는 미래의 나를 보듯 엄마를 보았습니다. 팬스레 정해져서 눈물이 날까봐 우린 서로의 눈길을 한참 피했습니다. 영양팀 김준경 대리



“니는 사람 살리고, 할매는 니 살린다!”

“아이고야, 얼굴이 확 상했네. 굶고 다녔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엌에서 뽀글뽀글... “토종닭 푹 삶았다~” 살 딱 찬 닭다리 하나 쏙 빼서 “요건 니가 먹어야 기운 난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나를 살리는 전설의 간호사! 이 맛에 손녀는 오늘도 환자를 지키러 갑니다. 암병원간호1팀 문다혜 대리

자연에서 닮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은 2011년부터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엄마 아빠를 닮아 아이들도 자연과 캠핑을 참 좋아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함께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며 밤 하늘의 별을 세어보는 모든 순간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과 취향, 습관이 되었답니다. 최근에는 오랜 소원이었던 캠핑카를 장만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전국을 누빌 생각에 매일 설렙니다! IT서비스팀 신창원 대리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

어린 시절, 매일 저를 깨운 건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TV 뉴스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문과 뉴스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한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던 저는 자연스레 시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소 15분 일찍 진료실에 도착하는 습관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줄곧 지켜온 저만의 원칙이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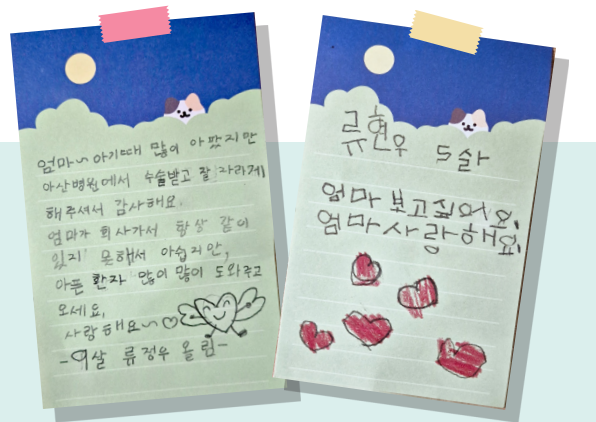
성실함을 지키려면 의지만큼 체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합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새로운 라이딩 코스를 찾아 떠나며, 해외 학회에 참석할 때도 그 지역의 자전거 코스를 탐색합니다. 시간을 내어 운동을 즐기는 것 역시 학창 시절 레슬링부 활동을 하실 만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 아버지의 영향일까요?

‘성실함’과 ‘운동을 즐기는 마음’이라는 두 가지 아버지의 유산이 제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



아들아 너는 네 멋대로 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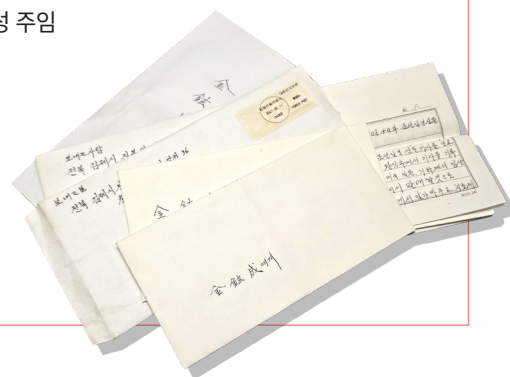
유년 시절, 아버지 서재에서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펼쳐 보진 않았지만 책 제목만큼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세 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얼굴로 웃고, 울고, 조잘조잘 말을 건네요. 아빠 표정을 따라 하고 아빠 말투를 흡수하듯 배우는 아이를 보면서 ‘가족이란 결국 서로 닮아가는 존재’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 옛 기억 속의 책을 구매하려고 검색해 봤어요. ‘18세기 영국의 지성으로 평가받던 필립 체스터필드가 아들에게 30년간 보낸 편지’라는 엄청난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책은 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건진운영팀 현범수 유닛 매니저**



꼬맹이들을 두고 출근하는 엄마의 발걸음이야 늘 무겁지만, 이제는 아픈 환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오라고 응원해 줄 정도로 성장했네요. 우리 병원을 통해 아이도, 저도 자랍니다!
내과간호1팀 이정윤 과장

할아버지, 우리 오래도록 편지해요

구운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는 애정을 담아 편지를 보내주세요. 흰 편지봉투에는 고향의 진한 흥내음이, 정자체로 쓰인 편지에는 삶의 나침반과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마다 할아버지와 저만의 소중한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자에 쿡쿡 담긴 할아버지와 저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합니다.
고객만족팀 김현성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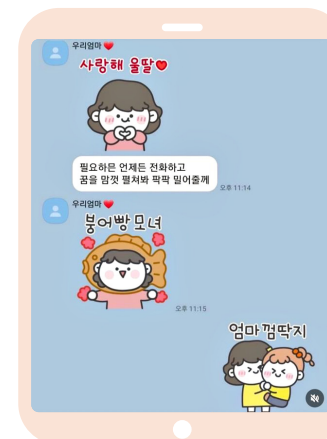


우리 부부를 찾아온 서로의 판박이들!

우리 집엔 7살, 8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빠 판박이예요. 생김새가 아빠랑 똑같아서 어린이집에선 ‘아빠’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죠. 주산을 배우기 시작한 요즘은 작은 입에서 “7원이에요, 9원이에요, 8원이면?” 외치며 문제를 풀 때마다 그 진지한 눈빛과 표정까지 얼마나 아빠랑 똑같은지 몰라요. 반면 둘째는 제 복사본이에요. 아는 형아가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근데 왜 애는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참 웃었지만 마음이 한편 뿌듯했습니다. 생김새만 아니라 말도, 웃음도, 울음도 많고, 흥 많은 것까지 저를 쏙 닮은 애교쟁이니까요. 두 형제를 볼 때마다 저랑 남편의 모습이 겹쳐져서 과거의 우리를 다시 만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닮아가며 쫓~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수검사팀 국민희 과장**



엄마의 무한 긍정 파워 메시지



저는 병원에 입사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신입 직원입니다. 최종 합격 소식을 엄마에게 들려드리자 카톡 메시지로 우리 병원에서 펼쳐질 제 미래를 응원해 주셨어요. 가족에게 받은 사랑을 어린이병원 환자 및 가족분들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엄마가 신장 치료로 중환자실에 계셔서 가족 카톡방이 조용합니다. 힘들 때마다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를 꺼내보며 이겨내곤 했는데 오늘따라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곧 건강을 되찾으시면 다시 “카톡 카톡” 울리겠죠? 조금은 시끄럽지만 긍정과 사랑, 행복이 넘치는 카톡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송나영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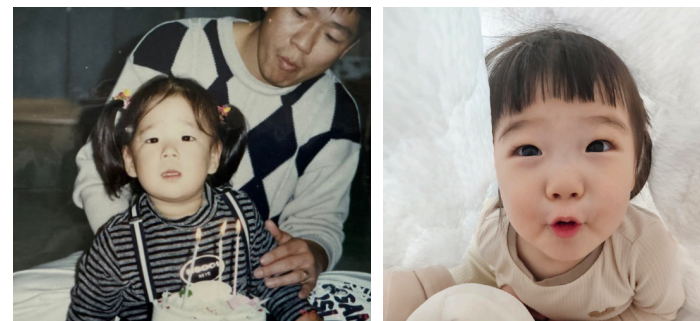
엄마, 나는 엄마를 되게 사랑하고, 엄마를 예뻐해요.
나는 엄마를 지켜주고, 나는 이럴때 나는 엄마를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스타벅스에 가고 엄마한테 라떼를 사줄 거야. 왜냐면 나는 엄마를 소고라고 생각해요.

글씨는 뽀뽀뽀해도
엄마한테 힘을 주는 막내의 편지~
간호교육행정팀 이지연 유닛 매니저

고모 판박이, 유전자의 힘(조카 ver.)

어딜 가든 “따님이세요?”라는 말을 듣는 봉어빵 조카를 보며 유전적 표현형의 경이로움을 실감합니다.

‘닮음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말처럼 요즘은 가족 모두 휴대전화보다 조카에게 눈을 맞추기 바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랑스러운 존재 덕분에 고모 마음도 따뜻해~
임상시험센터 장지혜 연구코디네이터



“가나의 신장이식 자립을 위한 도전, 멈추지 않을래요”

가나에서 온
에너스트 크와미 아제pong-탄도 임상강사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서울아산병원 신·취장이식외과에서 생체, 뇌사자 신장이식 수술에 대해 연수받고 있어요. 로봇수술을 배우고 후복막 종양 절제술 등 가나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수술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또한 환자 준비, 합병증 관리, 수술 후 장기 관리 등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임상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론, 통계학, 논문 작성 등 연구와 관련한 실질적인 노하우도 전수받고 있어요. 연수 기간 동안 총 네 편의 논문을 제출할 예정이에요.

ChatGPT에 신장이식 관련 최고의 병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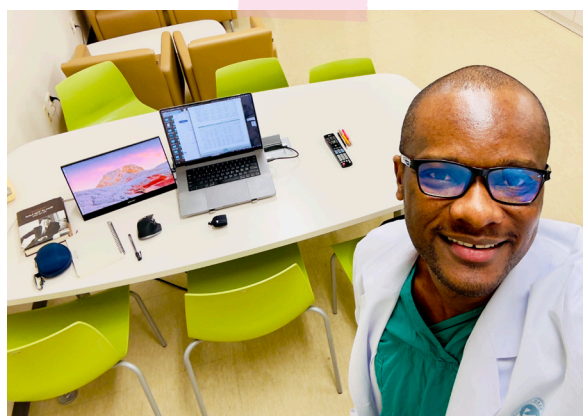
신장이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를 받으려면 어느 병원이 가장 적합한지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ChatGPT가 전 세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번의 질문 끝에 세 곳을 알려줬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장이식 수술 건수, 전문성, 결과,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아산병원을 최종적으로 추천받았습니다. 먼 아시아 국가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연수를 받기로 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 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공원 산책 #풍경소곳

이미 세 차례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이식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신장 기능이 다시 나빠져 결국 재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과거 수술 이력 때문에 환자의 신장 주변은 해부학적 구조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이었는데 지도교수인 김영훈 교수님은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이러한 수술일수록 집도 의는 인내심,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놓고 있어요.



#해외의학자 라운지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오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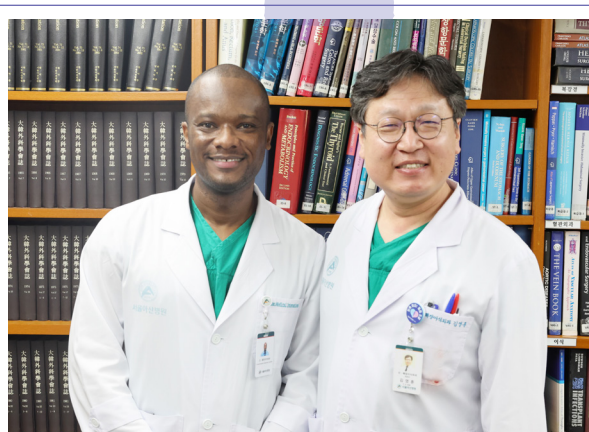
#대한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 초록 발표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면서 나가면 된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님의 회고록 「이 땅에 태어나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에요. 서관 7층 해외의학자라운지에 자주 가는데 이 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읽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까지 다 읽었습니다. 가나의 신장이식 수술은 2008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50건도 채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가나 환자들을 위해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저의 상황과 책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 책에서 배운 끈기, 결단력,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잊지 않을 거예요.

가나의 신장이식 수술 자립을 위해 앞장설 거예요.

가나의 만성 신장병 유병률은 약 13%예요. 수술이 필요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인도, 터키,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 수술을 받고 있어요. 가나에서 이뤄지는 신장이식 수술은 대부분 외국 의사에 의해 시행되고요. 연수가 끝나면 가나와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 의료진에게 이곳에서 배운 술기를 전수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거예요. 또한 아카데미, 시뮬레이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해 가나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지도교수 김영훈 교수님 #무한 감사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고객만족팀에서 협업/칭찬 게시판 관리와 자녀교육 독서 모임, 대학입시 컨설팅과 같은 전문가 상담 운영 등 조직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VOE 게시판에 접수된 고충, 건의, 제안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일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VOE 게시판에 접수되는 건의사항에 항상 긍정적인 답변만을 드리진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확인해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VOE 게시판에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차분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업무 중 받는 스트레스도 금방 털어버리는 편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동료가 저를 ‘잔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기억이 납니다. 차분한 성격을 좋게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배와 동료들에게 잔잔하고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퇴근 후 일상은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씁니다! 일주일 동안 쓴 일기를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생각날 때마다 찾아보곤 합니다. 대학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독서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책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려 노력하는데, 역시 모임 직전에 몰아서 읽을 때가 많습니다(웃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조직문화 업무 특성상 여러 부서와 직원들과의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VOE 게시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여러 부서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신입직원 같지 않라며 늘 칭찬하고 신뢰해 주시는 고객만족팀 팀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객만족팀 강은지 사원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피부과 윤혜경 연구원

‘헬스에디터 -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코너가 유익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여성암 발병 케이스를 많이 듣다 보니 남 이야기 같지 않아 유심히 읽게 됐어요. 이번에 건강검진 잘 받고 관리에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암병원간호2팀 장유진 사원

비타민D 데이 화보가 가장 좋았습니다. 2년만에 하는 행사라 그런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표지를 장식한 사랑스러운 우리 팀 선생님들도 반가웠습니다!

원무팀 김인혜 사원

‘AMC루키’ 코너를 통해 신입 선생님들의 첫인상과 각 부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 늘 좋습니다. 병원의 다양한 부서를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코너라고 생각해요!

외과간호2팀 최동혁 주임

‘국내 최초 AI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 기사가 인상깊었습니다. AI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모니터를 봐야 했던 시간에 한 번 더 환자와 눈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약제팀 이영라 사원

요즘 병원보가 나올 때마다 같은 부서 선생님들과 모여 머리를 맞대고 다른 그림 찾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과 다양한 다른 그림 찾기 기대합니다!

풍납동 사진관



선물 배달 온 아루미, 어린이병동에 등장!

5월 연휴를 앞둔 4월 30일, 어린이날 선물을 잔뜩 가지고 아루미가 되어 어린이병동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탈, 답답한 옷차림이 합쳐졌지만 아루미를 반갑게 맞으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땀 흘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내년 어린이날은 병원 밖에서 한껏 뛰어 놀며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가, 아루미보다는 레고가 더 좋은 것 같다? ^^

- 어린이병원간호팀 임소정 사원

※ ‘풍납동 사진관’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의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합니다.